

業界소식

식각 리드프레임 개발

□ 金星마이크로닉스(株) □

金星마이크로닉스(株)가 감광식각 기법을 이용한 식각 리드프레임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同社는 CAD(컴퓨터 지원설계)에 의한 포토에칭 기법을 활용, 기존 금형을 사용한 스탬핑 생산방식에 비해 훨씬 정밀도가 높은 리드프레임을 개발했다는 것이다.

식각 리드프레임은 부가가치가 높은 하이핀급 리드프레임으로 활용되며 소량다품종의 특성을 갖는 ASIC(주문형반도체)에 맞도록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어 IC 개발기간을 한층 단축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同社는 이의 개발에 따라 총50억원을 투자, 내년 1월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갈 계획인데 연간 60억원 규모의 수입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며 또한 국내 반도체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크게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국 送·受信 장비 원격제어 시스템 개발

□ 金星반도체(株) □

방송국의 송신소 증계소 등을 원격지에서 무인으로 자동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됐다.

金星반도체(株)는 방송국의 송신소나 증계소 등에서 운용되는 송신기 등 관련장비를 무인 자동으로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방송망 감시 제어 시스템(모델명 GCS-32R)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근무조건이 열악한 산간고지 등에 위치한 송신소나 증계소에 운용요원을 보내지 않고 방송국내에 설치된 제어장비를 조작해 방송망을 자동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퍼스컴 새 모델 선보여

□ (株)金星社 □

(株)金星社는 기존의 5.25인치 FDD보다 용량이 큰 3.5인치 FDD를 장착한 AT급 퍼스컴「마이티 ATIV」를 개발했다.

同社가 개발한 3.5인치 FDD장착 퍼스컴은 기존의 5.25인치 FDD보다 소형화됐을 뿐 아니라 용량은 기존의 1.2메가 바이트로 확대됐다. 또 이 제품은 인텔의 80286, 12.5MHz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채택, 데이터의 고속처리가 가능하며 특히 특수한 도표작성·통계·과학수치계산, 각종 사무용 그래픽 등의 업무처리에 적합하다.

특히 이 제품은 자체진단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디스켓을 내장, 사용시 발생하는 결함을 사전에 예방조치할 수 있고 시리얼 포트를 내장하고 있어 다양한 부가가치통신망 연결이 가능하다.

32비트 PC 완제품 첫 개발

□ 大宇通信(株) □

大宇通信(株)는 기존의 최고성능 32비트 PC보다 처리속도가 30%가량 빠른 새로운 32비트 PC인 486PC(모델명 PRO 6000) 완제품을 국내 업체로서는 처음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주기억용량이 기본 4메가 바이트까지 확장할 수 있으며 미니 컴퓨터급의 성능을 갖고 있다.

특히 PC의 세계적 표준규격으로 정착되고 있는 EISA 규격을 채택, 기존 PC와 호환성이 있으며 다양한 OS(운영체제)를 사용할 수 있다.

CRT 國産化

□ 오리온電氣(株) □

오리온電氣(株)가 국내 처음으로 정전편향 방식의 20MHz급 오실로스코프용 CRT(음극선관)를 개발했다.

同社에 따르면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온 이 제품은 지난해 10월 同社가 韓國 전자전기계측기기연구조합과 공동으로 개발에 착수, 총 9억원의 연구비를 사용해 이달초 개발에 성공했다.

光磁氣 디스크 國産化

□ (株)S. K. C □

(株)S. K. C는 光디스크와 磁氣디스크의 장점만을 살린 다음세대의 기록매체인 光磁氣 디스크를 세계에서 4번째로 國産化했다.

이 제품은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되어 오디오 및 비디오 테이프보다 음질 화질이 깨끗하며 光디스크로선 불가능한 수록자료의 지움 및 정정이 가능하다.

직경이 13cm인 光磁氣 디스크 1장의 기억용량은 650메가 바이트로 이는 5.25인치짜리 플로피 디스크 1,000장 분량이며 A4용지 200페이지의 책을 200권 이상 수록할 수 있는 용량이다.

또한 이 제품은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전자파일링 시스템 CAD와 CAM(컴퓨터 지원설계 및 생산)용 외부화상 정보 메모리,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전산화 등에 폭넓게 쓰여 기존의 HD, FD, V-

TR 및 오디오 테이프 등을 대체할 전망이다.

전용선 모델 2種 개발

□ (株)콤텍시스템 □

(株)콤텍시스템이 고성능 전용선 모델을 개발, 시판에 나섰다.

同社는 국제 표준규격을 채용하고 고성능의 V-LSI(초대규모 집적회로)를 사용해 신뢰성이 높고 설치 사용 및 시험이 간편한 전용선용 모델 2종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통신속도가 4,800BPS인 X-TAL 48N 및 9,600BPS인 X-TAL 96NA로 자동적응식 등화회로를 내장, 자동으로 신속한 등화조정이 이루어진다.

개인·소기업 OA용 16비트 퍼스컴개발

□ 韓國아이·비·엠(株) □

한국 IBM(株)는 개인 및 소규모 기업의 사무자동화에 적합한 16비트 퍼스컴인 IBM퍼스널 시스템 카운슬러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IBM퍼스널 시스템 카운슬러는 3.5인치 FDD를 채택한 5530XK 2와 3.5인치 FDD 및 30메가 바이트의 하드디스크를 내장한 5530XK 9 등 두가지 모델이 있는데 인텔 社의 80286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내장했다.

특히 이 제품은 한글처리를 기본으로 하면서 IBM의 마이크로 채널 아키텍처를 채택한 것이 장점이며 기존의 IBMP5-2, PS-55 및 IBM 5550 계열기종과도 호환성을 지니고 있다.

4 MDRAM生産

□ 現代電子産業(株) □

現代電子産業(株)가 올해 9월께 기억소자인 4 M DRAM 반도체를 첫 생산한다.

同社は 4 M DRAM의 설계 및 공정기술 등을 자체개발하는 것으로 고유브랜드를 붙여 생산품의 거의 전량을 美國, EC 등 컴퓨터 업체에 수출키로 했다.

4 M DRAM은 기억소자 반도체 중 최첨단 제품으로 74mm²의 크기에 신문 32페이지 분량인 알파벳 51만 2,000자(한글 26만자·16페이지)의 기억용량을 갖고 있고 0.8 μ 의 가공기술과 초미세 회로 선폭을 유지해야 한다.

이 제품은 日本의 도시바, 히타치, 미쓰비시, NEC, 후지쓰와 삼성전자 등 몇몇업체만이 생산하고 있다.

개당 100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4 M DRAM의 올해 전세계수요는 200만개에 그칠 것으로 보이나 '90년대에 들면 해마다 늘어 내년 중 3200만개, '91년 1억 5600만개, '92년 5억 3100만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 大和工業社

- 변경후 주소 : 경기 광주군 실촌면 신대리 150-3
- 변경후 전화 : 0347) 64-5111/3

□ (株)웁슨電子

- 변경후 주소 : 서울 영등우체국 사서함 1325호
- 변경후 전화 : 563-0970/1

□ (株)뉴텍

- 변경후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 216-5 동보B/D 3층
- 변경후 전화 : 675-8417/9

□ 韓國電子精密(株)

- 변경후 주소 : 인천시 남구 주안동 17-1 주안시범공단 490호
- 변경후 전화 : 032) 8605-490/5

□ 韓國안테나

- 변경후 전화 : 032) 676-5511

住所 및 變更事項 案内

□ CNB테크놀러지

- 변경후 주소 : 서울 송파구 방이동 64-2 동성B/D

□ 伽倻電子(株)

- 변경후 주소 : 경기 안양시 석수 2동 281-1 안흥B/D
- 변경후 전화 : 0343) 72-1844

바로 잡습니다

本誌 제 9 권 12 호 ('89. 12월) 의 내용중
업계소식의 수출의 탑 수상자 명단중 5
百萬弗 塔 (9 個業体) 를 (10 個業体) 로,
高麗警報器 (株) 代表理事 金淳泰 를 추가
합니다.

